



문화관광탐험대가 펴낸 '광주문화견문록'에는 대원들이 발품을 팔아 찾아낸 광주의 숨겨진 장소들이 담겨 있다. 박재완·김세진·임선자·심인섭·한진수(사진 왼쪽부터)씨. <광주문화재단 제공>

광주사람 100명이 전하는 광주이야기

'100% 광주' 아티스트 토크... 4월 19일 공연

이웃 이야기 통해 '나'를 들여다보는 계기로

“미래가 두려운 사람.”
 “금년에 물어 본적이 있는 사람.”
 “새벽 1시 당신의 모습.”
 호주 멜버른의 한 공연장. 무대 위 100명의 출연진에게 던진 질문은 고스란히 객석의 관객에게도 전해진다. 남자와 여자, 연령대 등을 묻는 단순한 질문도 있지만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등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질문들도 있다.



첫 출연자 김민수씨



슈테판 카에기

24일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 '100% 광주' 아티스트 토크에서 소개된 '100% 멜버른' 공연 모습 중 일부다.

다큐멘터리 연극 창작그룹 '리미니 프로토크플'(Rimini Protokpl)의 대표작인 '100% 도시' 연작은 지난 2008년 베를린에서 초연됐다. 이후 지금까지 런던, 파리, 도쿄 등 세계 10여개 도시에서 진행됐다. '100% 광주'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예술극장이 제작하는 커뮤니티 퍼포머티비티 2014 프로그램 중 하나다.

'100%도시' 연작은 연령대, 성비, 거주 지역 등 인구조사 통계학적 수치를 바탕으로 선발된 100명의 시민들이 출연하는 공연이다. 시민들의 소소하지만 친숙한 이야기를 통해 '숫자'에 불과했던 통계 수치와 대중의 익명성 속에 숨겨진 우리 이웃을 목격하게 하는 게 작품의 의도다. 그 이웃의 이야기를 통해 자연스레 '나'를 들여다보게 되는 셈이다. "길거리에서 만났다면 전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던 사람들이 무대 위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도시 전체를 완벽하게 반영하지는 않지만 도시의 이미지 정도는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리미니 프로토크플은 보통 도시마다 50~60여개의 질문을 진행한다. 출연진들은 4월부터 리허설을 시작한다. 그들은 실제 자신을 연기하고, 무대 위에서 서로 도와가며 작품을 만들어 간다. 짜여진 플롯에 의해 움직이기도 하지만 즉흥적으로 무대 위에서 출연진이 질문을 하기도 하고, 객석에서 던져지는 질문에 작품 속이 녹아든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흥미롭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누구의 삶이든 다 흥미롭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 자체도 충분히 연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리허설 과정 동안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기도 한다. 토크 과정을 거치면서 설득하고 토론하고, 의견을 바꾸기도 한다. 그런 과정들이 흥미롭다. 단순히 묻고 답하는 게 아니라 리듬감과 음악, 구성 등을 통해 엔터테인먼트적 요소가 가미돼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을 거다."

공연은 오는 4월 19일 광주문예회관, 26일 서울 국립극장에서 공연된다. 문의 062-410-3633.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에 이런 곳이?

당신은 광주를 얼마나 아시는지. 광주문화재단이 펴낸 '문화관광탐험대의 광주견문록'은 흥미롭다. 익숙한 곳도 있지만 "이런 곳을 어떻게 찾았지" 싶은 장소도 있다. 이 경우 가옥은 알았지만 이제만 가옥(광주시 광산구)은 낯설었다. 게스트 하우스도 흥미로웠다. 맛있는 음식점과 가보고 싶은 카페, 참여해보고 싶은 행사도 눈에 띈다.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서도 정작 광주를 너무 모르겠다. 궁금증도 생겼다. 탐험대원이 왜 이곳 저곳 다니며 많은 걸 알게됐다. 막걸리 몇병 사들고 노인정에 찾아가 그분들의 이야기 듣는 게 재밌다. 그들의 이야기 보따리 속에 '진주'가 숨겨져 있었다.

1~3기 대원으로 활동한 프리랜서 사진작가 박재완(64)씨의 말

서 광주의 문화를 많이 알게됐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 탐험대원이 됐다. 회사원 심인섭(61)씨는 프로야구, 여행 등을 꾸준히 인터넷에 올리는 인기 블로거다. 다른 지역 이야기도 좋지만 나고 자란 광주에 대해 더 잘 알고 싶어 합류했다.

생태·숲 전문가인 김세진(52)씨는 광주가 문화도시를 지향하지만 숲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게 아쉬웠다. 잊혀져 가는 것을 조사·발굴하고 싶었다. 나무의 나이에 속에는 '역사'가 적혀 있다. 기수당 20여명의 탐험대원들은 팀으로 움직인다. 2기 때는 과테말라, 미국 등 외국인 대원들도 많았다. 그들의 눈을 통해서 광주를 바라보는 게 오히려 신선했다.

눈 밝은 대원들은 새로운 장소를 발견할 때, 숨겨진 인물들을 만나게 됐을 때 희열을 느낀다. 충효동 우성마을, 양동 석암마을 등 광주 지역의 동서남북 '골'지점을 찾는 일은 흥미로웠다. 이매방 선생의 제자로 남은 무용학원에서 외로이 춤을 추던 일흔아홉 살 무용수 박은하씨와의 만남도 잊히지 않는다.

부듯한 일도 있었다. 나주 출신 김창완 명창의 노래비가 세워진 광산구 삼도동 탐험 때 이야기다. '제비

문화관광탐험대, 광주 구석구석 들여다보기

명인·명소·명품 탐방... 4기 탐험대원 모집

'문화관광탐험대'는 일반 시민들이 직접 발품을 팔아 광주의 속살을 들여다본 프로젝트다. 4기 탐험대 모집을 앞두고 박재완(64)씨 등 대원들을 만났다. 마침 회원들은 이날 KBS 1TV '열린마당'에 출연, 탐험대 홍보를 하고 온 참이었다. 대원들은 "광주 사람이지만, 광주에 대해 잘 몰랐었다"며 탐험대 활동을 통해 광주에 대한 정이 깊어졌다고 말했다.

이때 IMF로 은행을 그만두고 개인택시 기사가 된 한진수(54)씨는 사진을 전공해 문화에 관심이 많았다. 택시를 운전하다 보니 외지인을 자주 만났다. 이는 만큼 소통하는데 무뎠던 산과 5·18 정도에 그쳐 아쉬웠다.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며칠씩 머물고 간다. 하지만 딱 야구 경기만 보고 떠나는 게 안타까웠다. 뭔가 정보를 주고 싶었다. 광주를 멋지게 소개하는 것이 한씨의 꿈이다. 전북에서 시집은 임선자(여·58)씨는 7년전 사직동 마을지를 만들면

'페스티벌 오! 광주-브랜드공연축제' 작품 4편 선정

오는 5월 열리는 2014년 '페스티벌 오! 광주-브랜드공연축제' 무대에 설 지역 브랜드 작품 4편이 선정됐다. 광주문화재단은 지난 1월 말부터 광주지역 민간 공연단체를 대상으로 브랜드공연축제 지역 참가작을

공모한 결과 총 13개 공모작품 중 전통문화연구회 열수(대표 김양균)의 '인수화풍', 풍물연희예술단(대표 장호준)의 '광주비나리/광주관타지(打志)', 나모 문화네트워크(대표 김응목)의 '유지컬 서서평', 비상무용단(대표 박종임)의 '천개의 공방' 4개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들 작품은 5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리는 '페스티벌 오! 광주-브랜드공연축제'에 공식 참가작으로 참여하고 공연 보상으로 작품당 1500만 원씩을 지원받게 된다. /이보람기자 boram@

www.kjhr.com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광주맛집 5회 연속 1등맛집 선정

2006년(17기), 2008년(27기), 2010년(37기), 2012년(47기), 2014년(57기)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세미나, 가족모임, 비즈니스 미팅에는 역시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준비하겠습니다.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킨 광주의 대표 맛집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홀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 1등맛집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맞춤형 출장 도시락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카페 보네르 www.geumsoojang.com